

##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성공 요인



김문규 KT/플랫폼연구팀장

**컴** 포넌트 기반 개발(CBD)에 의한 소프트웨어(SW) 컴포넌트는 기존 라이브러리나 모듈이 진화한 캡슐화된 SW모듈이라고 볼 수 있다. IT선진국에서는 공인받은 공통컴포넌트를 조립함으로써 구축비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서비스 개발차원의 SW생산공장 체제로 전환하여 상품화된 컴포넌트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IBM의 경우, 오랫동안 추진해온 샌프란시스코 프로젝트를 웹스피어(WebSphier)로 진화시켜 사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개발자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CASE 개발툴을 개발한 래쇼날 소프트웨어사를 인수하여 CBD 분야 개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웹응용서버(WAS) 공급을 하고 있는 BEA사는

---

약력 : • 79~81 KIST 부산사무소장 • 87~94 KIST 책임연구원 • 88~89

KIST 강남분소장 · 90~92 SERI 전산교육실장 · 현재 KT 플랫폼연구팀장  
웹로직(Weblogic)을 제공함은 물론 세계 최대 SW 컴포넌트 유통 사이트인 컴포넌트 소스사를 인수함으로써 SW 컴포넌트에 대한 대형 공급자로 부상했으며, 플래시 라인사와 같은 전문 유통업체들이 SW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후지쓰사도 비즈니스 컴포넌트 뿐만 아니라 유저인터페이스(UI) 컴포넌트까지 회원사들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에는 SW 컴포넌트 컨소시엄(KCSC)에서 운용하는 컴포넌트 등록시스템이 있고, 정부 프로젝트에서 산출되는 컴포넌트를 유통하는 업체로 엔쓰리소프트사와 컴포넌트뱅크사를 선정하여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CBD를 적용하여 개발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자체 내에서 수준 향상에 머무르는 것과 앞으로의 개발에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1차적으로 기존 방식보다 초기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 SI업체들이 시스템 개발 수주를 받더라도 CBD에 의한 개발을 꺼리고 있는 것도 숙련된 개발경험자의 부족과 비즈니스 로직의 체계화된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발 남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또한, 컴포넌트 SW는 인터페이스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체계화된 디렉토리가 부족하여 적합한 컴포넌트를 찾

기가 어렵고 사용자가 테스트를 수행하고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SW인증체계가 없어서 유통 SW컴포넌트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IT서비스 개발시 SW 컴포넌트에 대한 재 활용, 개발기간 단축, 품질보증, 유지보수 용이 등 CBD에 대한 환상을 갖고 수요자들은 시스템 개발을 요청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자들의 체계적인 준비가 없으면 과거의 정보공학개발, 객체지향개발의 경우와 같이 결국은 진행은 되었지만 기대에 미흡한 면이 있어 향후 SW 컴포넌트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성공요인을 제언코자 한다.

첫째,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공통성과 가변성이 보장되는 컴포넌트들이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유통에 대한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SI 수준에서 도약하여 전자부품 공장과 같은 공통 SW 컴포넌트 생산 전문업체들의 등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SW컴포넌트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 또는 신뢰성 있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 개발시스템이나 패키지는 나름대로 품질을 평가하는 기관과 툴들이 있으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구축되기 전에 테스트하는 절차나 방법을 체계화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셋째, 닷넷(.NET), 자바(EJB) 등과 같이 양대 플랫폼

으로 분류되어 CBD를 구분하지 않고 웹서비스와 같이 플랫폼에 무관하게 서비스간 통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수용하고 나아가 컴포넌트 기반 비즈니스 모델(CBM)과 같은 업무의 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SW 컴포넌트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SW컴포넌트 재활용 성공사례와 SW 컴포넌트의 지속적인 보완개발, 또 차세대 IT 서비스 플랫폼인 웹서비스와 연계 발전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SW 컴포넌트 등록정보의 기업간 개방과 정보공유를 제도화하여 SW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해야만 될 것이다.